

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와 대응 필요성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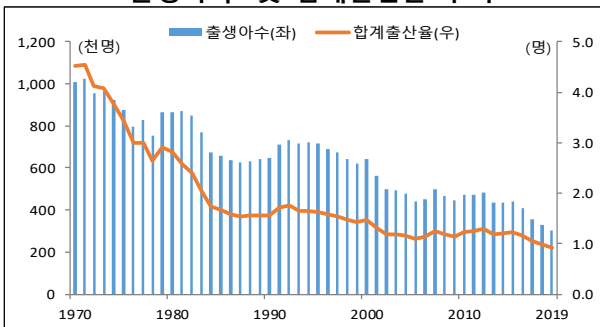
- ◆ 합계출산율이 0.9명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한국의 저출산은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촉진시키며 각종 경제·사회적 문제를 야기
- ◆ 정부와 기업은 현재 수립 중인 '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'의 추진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·종합적인 대응책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

□ 최근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더욱 감소하면서,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합계출산율*이 0.9명 이하로 하락

* 여성 1명이 가임기간(15~49세)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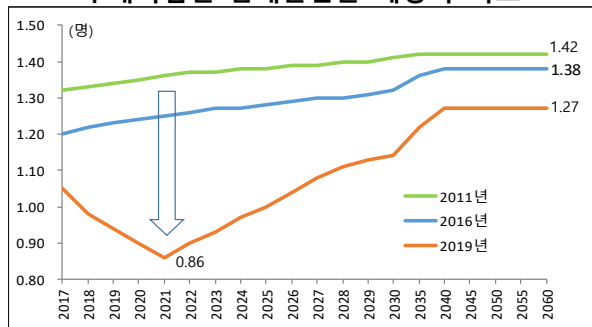
-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, 2002년 40만명대, 2017년 30만명대에 진입하였고,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진입 예상
 - 최근의 출생아 수는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
 - 2019년 출생아 수의 경우, 통계청이 2016.12월과 2019.3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(중위추계* 기준)에 따르면 각각 410천명, 309천명이었으나, 실제로는 303천명을 기록
 - * 장래인구 추계 시 중위추계, 고위추계, 저위추계가 있으며, 본고에서는 모두 중위추계 기준 수치
 - 2020.1~8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9.5% 감소하였으며, 연간으로는 275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(2016.12월 추계시 409천명, 2019.3월 추계시 292천명)
- 합계출산율은 1970년 4.53명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8년 0.98명으로 1명 이하가 되었으며, 2019년 0.92명으로 하락하였고, 2020년 1분기 0.90명, 2분기 0.84명을 기록
 - 2018년 합계출산율(0.98명)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이 유일
 - * 2018년 OECD 37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: 1.63명 (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: 2.41명)

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추계시점별 합계출산율 예상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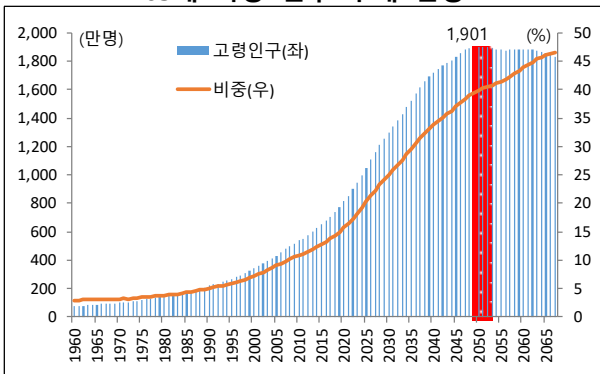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

□ 저출산 심화는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키며, 각종 경제·사회적 문제를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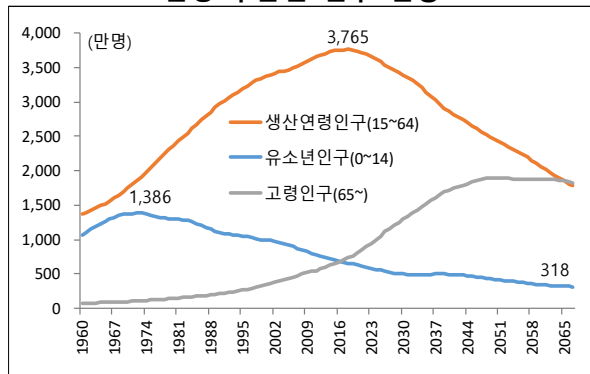
-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나, 한국의 경우 초저출산* 상태의 지속과 수명 증가**로 고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(15~64세)도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
 - * 합계출산율이 1.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
 - ** 기대수명 전망(통계청, 2019) : 2020년 83.2세 → 2040년 86.8세 → 2060년 89.4세
 - 고령인구(65세 이상) 구성비는 2017년 13.8%에서 2025년 20%, 2036년 30%, 2051년 40%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
 - * 206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42.1%로 일본의 38.2%보다 3.9%p 높을 전망(UN, 2019)
 -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면서 40년 후에는 전체인구의 절반 이하(48%)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,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, 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경제·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

65세 이상 인구 추계 전망



자료 : 통계청

연령 구분별 인구 전망



자료 : 통계청

□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사회적 대응책 모색 시급

-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, 초고령사회 진입*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국가적·사회적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
 - * 통계청에 따르면,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
-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'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'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, 기업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, 신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